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교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September 16, 2021 Vol. 781

굿네이버스, 아프가니스탄에 총 250만 불 규모 긴급구호 진행

식량 배분, 식수위생 지원 등 현지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 예정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가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아프가니스탄에 총 250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정세 불안으로 인해 지난 1월 이후부터 8월까지 최소 55만여 명의 실종민이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흩어진 실종민들은 피난처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경 폐쇄로 인한 물자 부족 및 물가 상승으로 아동을 비롯한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인터넷과 금융 시스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코로나19 상황까지 겹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프간 실종민 모습 ©굿네이버스

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31일 성명을 통해 “아프간 인구의 절반인 1천800만명이 생존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프간인 3명중 1명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고 5세미만의 어린이 과반이 내년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굿네이버스는 총 250만불 기금과 필요물품(Gift In Kind) 지원을

통해 긴급구호에 착수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에 따라 식량 배분, 식수위생 지원 등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즉각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우선 100만 불 규모의 긴급구호

를 진행하고, 실종민을 대상으로 3년간 150만불과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최민호 굿네이버스 글로벌 파트너십 센터 사무총장은 “굿네이버스는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교육, 교육문화센터 운영, 장학금 지원, 보건위생, 식수지원, 긴급구호, 사회적 경제의 빈곤층 소득증대 프로그램 운영, 아동과 여성 권리 옹호 캠페인 사업 등을 국제기구와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진행해 왔다”며 “최근 정세불안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아프간 실종민들과 빈곤층을 위해 식량, 기초생활용품, 의료 물품 및 서비스,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1차 식량과 기초생활용품 지원, 2차로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하려고 한다. 미주 동포, 한인 단체 및 기관, 사업체, 가정과 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문의: 844-357-7797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한국의 사마리안퍼스 사역 파트너십 환영”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웨비나 캡처

세계적인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안퍼스(회장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26일 오후7시(뉴욕시간) 한

국과 미주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웨비나를 통해 한국의 파트너십을 환영하는 한편, 앞으로의 협력

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Building a Legacy, 하나님 나라와 유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마리안퍼스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는 첫 세미나로, 사마리안퍼스 대표들과 한국교회 및 미주한인들의 온라인상의 첫 대면이었다. 웨비나는 크리스토퍼 제임스 위크스 사마리안퍼스 한국지부 대표가 진행했다.

이날 회장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한국에 보내는 특별감사 메시지를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이어져 온 한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프랭클린 목사는 “저와 제 가족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1973년 아버지는 서울에서 자신의 가장 큰 전도집

회를 열었고,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 또한 어머니는 (남북분단 전)평양에 있는 신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아시아의 선교사들은 모두 그 학교를 다녔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헌신할 것이고 여러분의 파트너십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마리안퍼스의 목적과 관련,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도우라는 교훈을 배웠다. 그것이 우리 임무이고 그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해왔다”면서 “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기를 소망한다”고 비전을 설명했다.

현재 사마리안퍼스측이 추진하고 있는 케냐 텐벡병원 흉부외과

센터 건립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했다. 프랭클린 목사는 1980년부터 이 병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는 “당시 병동은 한 침대에 3명의 환자가 누워야 할 정도의 혼잡했다. 우리는 병원이 시설을 확장하도록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됐다”면서 “흉부외과 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수술을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든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 시행할 수 있고, 현지 의사들에게도 심장 절개 수술을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증이 될 이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피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갈라복사/갈라프린트/갈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이웃들의 **다정한** 베풀이 되고 싶습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중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장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번 한번 의뢰인과의 의뢰를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친된 변호인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연)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의회의 고문 변호사
(전) 제미 알맹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세 장소 이전”

대면/전화상담 예약은 **213.820.3704** E-mail: marhlaw@yahoo.com
사무실 : 213.487.9190 Fax: 213.487.9484
700 S. Flower St., STE 1000 Los Angeles, CA 90017
3435 Wilshire Blvd., STE 2700 Los Angeles, CA 90010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GBC 미주복음방송 주최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 열린다

GBC 미주복음방송(AM1190)이 개국 30주년을 맞아 K-Gospel Band Contest (K-가스펠 밴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내 거주하는 3인 이상의 크리스천 밴드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교회 찬양팀이나 연합 찬양팀으로도 참가가 가능하다.

대상을 비롯해 우수상, 특별상이 선정되며 총상금은 \$1만4천 달러다. 또한 대상과 우수상 3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뮤직비디오 및 음원 제작, 그리고 본선 입상자 전원에게는 GBC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각종 행사 및 공연 기회가 주어진다.

접수는 10월 15일까지며, 예선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영상을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재해 일반인투표와전문심사위원 심사를 동시 진행하게 된다. 예선을 통과한 팀은 전문 사역자의 멘토링 워크숍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은 12월 2일(수) 현장 무대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주복음방송은 “오래 동안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현장 예매가 중단되고, 찬양팀과 찬양밴드도 함께 위축되었던 기간을 마감해 가는 시점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보컬 밴드 찬양팀을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자세한 문의를 웹사이트 kgbc.com 또는 전화 714-484-1190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비전케어, 무료 시력검사 및 백내장 수술 진행



비전케어서비스가 무료 눈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비전케어서비스 제공

9월 18일 오전 9시부터 LA 총영사관 주차장서 무보험·저소득층 한인들 대상 ... 전문가가 직접 검사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VCS West-이사장 고정원)가 무보험자 및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오는 9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한인타운내 월셔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캡프’를 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질환 또는 백내장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한인들은 이날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백내장 질환이 심각한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 한인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한다.

오픈뱅크, LA 총영사관, 남가주 한인간호사협회가 후원하고 LA 코리아타운라이온스클럽(구 올림피아라이온스클럽·회장 짐 허)과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조성진 안과전문가와 리사 황 안과전문가가 자원 봉사자로 참여해 직접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비전케어 미주서부 이사들과 코리아타운라이온스클럽 이사들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한다.

진료는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되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예약을 받는다. 예약자는 행사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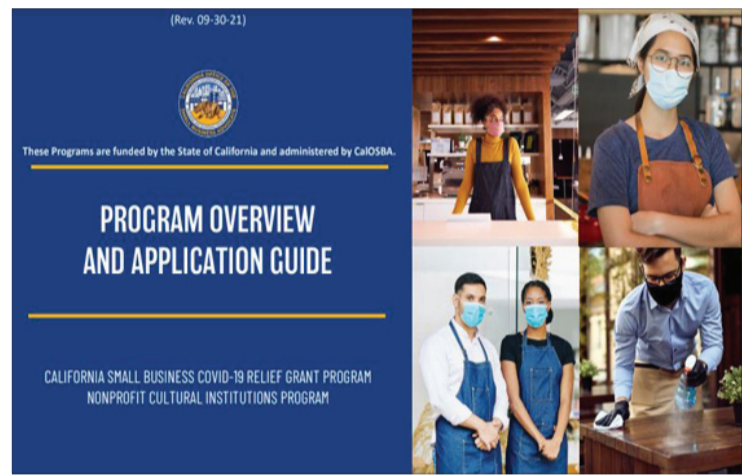
비전케어 미주서부의 고정원 이사장은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 서 의료의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검사를 받는 이도 제공하는 우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한인 커뮤니티 내 무보험자와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무료로 안검사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무료 안과 외래진료를 받은 환인은 700여명에 달하며 80여 명의 시각장애자들이 무료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19년과 2020년에도 온라인 아이캡프를 진행해 60여명의 한인 및 비 한인에게 무료검사를 제공했으며 12명의 한인 및 비 한인에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다.

일시: 2021년 9월 18일(토) 오전 9시-오후 12시
장소: LA 총영사관 주차장
주소: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문의: (213)215-3420 고정원 이사장 (213)505-2552 흥연아 총무

한인 비영리단체, 스몰비즈니스, 개인사업자 캘리포니아 그랜트 최대 2만5000불 신청 가능



코로나19 피해업소 대상, 9월 30일 접수 마감
<https://careliefgiant.com/>에서 신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몰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15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그랜트를 제공한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와 캘리포니아 블랙 미디어는 지난 7일 비영리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스몰비즈니스 구제 그랜트(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Program)에 대해 소개했다.

그랜트 액수는 최소 5천 달러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로 신청 자격은 개인소유 비즈니스, 예술단체, 비영리단체, 또는 연매

출 1천 달러 이상 250만 달러이하 스몰비즈니스이며, 캘리포니아주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중반에도 운영했어야 한다. 사업주가 미국시민권자일 필요는 없다.

이 자금은 대출이 아니며, 갚을 필요가 없는그랜트이다.그랜트 신청은 웹사이트 CAREliefgiant.com에서 가능하며 신청 마감은 9월 30일까지다.

매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7시 까지 전화 (888) 612-4370를 통해 그랜트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 단체를위한 문의 전화는 (866) 759-5320이다.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비영리단체등록 ■특허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Let us embrace all nations!

이 세미나는 릴리 재단 후원으로 진행된 "다문화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일부로 진행됩니다. GMU 박사원 연구팀(지도 이병구 박사원장)은 "다문화 사역 활성화를 위한 목회자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다문화 사역의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설문결과로 진행됩니다. 본 세미나는 다문화사역을 활발하게 펼치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다문화사역 현장과 다문화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신학교에서 다문화 사역자 훈련에 필요한 조언을 듣는 세미나입니다.

Zoom Conference
Sep 15 2021 (USA) 18:00
Sep 16 2021 (Korea) 10:00



GMU

Lilly Foundation

GMU 박사원



GMU 총장 최규남 박사



GMU 박사원장 이병구 박사

강사 (Guest Speakers)



Keith Park Pastor



Donald Bronowski Pastor



James P Kennedy Pastor

GMU 박사원

남가주기독교교회협 임시총회 열고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선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임시총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 협의회는 김용준 목사(구제와 사랑

의 교회)를 수석 부회장으로, 홍석배 목사(나성성림교회)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은혜로운 가운데 경선보다는 화합하는 취지로 임원 선출이 진행

됐다”며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한 해를 이어받아 내년에는 더욱 은혜롭고 활기찬 교협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사우스베이 목사회, 팬데믹 이후 첫 기도회 개최



지난 8일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사우스베이 목사회 기도회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정기 모임을 갖지 못했던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지난 8일, 토랜스제일장 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팬데믹 이후 첫 기도회로 모였다.

오랜만에 만난 사우스베이 지역 목회자들은 서로의 목회와 안부를 나누며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실행위원 고창현 목사는 “올 여름부터 실행위원(토랜스조은교회 김우준목사, 가데나장로교회 신태섭목사)들이 주축이 되어 사우스베이 목사회 모임 재개를 놓고 기도해왔다”며 “델타변이가 기승을 부르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모임 재개의 소감을 전했다.

김관중 목사(새창조교회)도 “사우스베이 목사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기도회는 고창현 목사의 인도로 신태섭목사의 기도후에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사교회)가 “너를 낮추시며”(신 8: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현수 목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팬데믹이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못하고, 나의 의와 욕심을 위해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하자.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자”고 권면했다.

이어진 기도회는 사우스베이 지역 70교회와 형제 이민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목회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김현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사우스베이 목사회는 델타 변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11월 두 번째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할렐루야 메세지’ 로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소통하세요”

Hallelujah is free and accessible from any device. With over 150 online services every single week, across 12 different platforms, you'll always find an option that fits your schedule.

Each service lasts about an hour and features worship music and a relevant, life-changing message. Attend by yourself, or join the conversation on a live chat platform hosted by caring, helpful volunteers.



전세계 어디서나 문자 메세지, 음성통화, 영상통화 가능 글로벌 복음화 목표로 비영리 선교법인 할렐루야 AI 개발

세계 복음화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선교법인 '할렐루야 AI'가 애플과 안드로이드 메신저 앱을 출시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많은 소셜 앱 서비스가 있지만 할렐루야 메시지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소셜 앱이다.

애플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Hallelujah Message' 앱을 다운로드받아 본인의 이름과 셀폰 전화번호, 6자리 시큐리티 코드를 입력하면 전세계 어디서든지 문자 메세지, 음성통화,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통신지역에 따라 음질과 화질에 차이가 많은 카카오톡에 비해 송수신 퀄리티가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할렐루야 메세지 앱 사용자들은 자신의 셀폰 연락처 리스트에 있는 가족과 친구, 교인들을 초대할 수 있다. 또 미국에 서버가 있어 사역과 선교와 관련된 소통 시 안전성과 비밀성이 보장된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버전은 할렐루야 AI 웹사이트(www.hallelujah.ai)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메세지 앱 개발을 주도한 스티븐 최 디렉터는 “팬데믹으로 선교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복음화 수단은 소셜 앱 밖에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고,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앱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기 베타 버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오류를 잡을 수 있다”며 “선교 차원에서 크리스천 1명당 100명씩 가족과 교인들에게 가입 권유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한 대형교회도 할렐루야 메세지 앱을 교인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할렐루야 메세지 앱을 개발한 할렐루야 AI는 가입자가 1만명을 넘을 경우 문제점을 보완해 개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인 관리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설립된 할렐루야 AI는 궁극적으로 저궤도 위성 300개를 띄워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지역 오지와 북한 등 공산국가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김동욱 기자

문의: (213)500-2635

한인 가정상담소 제5회 가정폭력예방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한인사회내 만연한 가정폭력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교계와 목회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KFAM 한인 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오는 10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줌

웨비나로 '함께 만들어요, 우리 모두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주제로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KFAM(한인 가정상담소), KAN-WIN(시카고 여성향라이프) 그리고 KABA(남가주 한인 변호사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연방정부가 후원한다.

컨퍼런스 참석은 무료며, 등록 문의는 213-235-4848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카는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인년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다 돌리실고 오세로~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단), 주선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필목사(예수전도단), 송정원목사(복음전도대 공동대표), 권은목사(유리리주대표), 신영민목사(동원대 대학원), 유관목사(동원대), 김안목사(CCJ공동대표)

• 영의 복음 아래 한민족을 구원하시길 소망합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굽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공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행위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로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기독교선교도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온라인교육의 선두주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한국, 미국 내 24개 주, 그리고 세계 30개국에서 WMU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전 학위과정 ATS, ABHE 승인
- 100% 온라인 프로그램
- 미국 내 우수 기독교대학 편입 및 상위과정 진학 가능
- 신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학
- 수료과정, 준학사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연방 정부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

주소: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문의: (213) 388-1000, admissions@wmu.edu | 웹사이트: www.wmu.edu

✉ **신교부흥을 회복하라 #221**

“새 학기를 맞이하는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 교정”

2021년 9월 새 학기의 입학식(13일)을 맞이하면서 학교는 활력을 찾았다.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약한 달 일찍 방학을 한 후로 4개월 만에 개학을 준비한다. 지난 9월 6일 임원들과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21명의 학생이 치아파스에서 비행기편으로 대거 도착했다. 새벽 1시까지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학생들의 모습은 역시 생기발랄이었다.

방학 중에 남부지역 방문 때 만나 본 학생들도 있고 4개월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다. 서로 부둥켜안고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지역별로 삼삼오오 이번 주중에 속속 도착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총 15명이다. 재학생 중 3명이 휴학을 했다. 한 명은 여학생으로 가정 형편상 직장을 다니면서 근처의 성경학교를 다니기로 했다. 두 명은 결혼을 했다. 본교 학생들이 교제하였다. 학교 내규는 졸업반 때까지 이성 교제 금지였는데 그들은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이다. 방학 중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결혼식을 올렸다. 노회장이 학교에 양해 서신을 보내왔다. 1년 휴학 후 남학생이 우선 복학하기로 했다.

아직 멕시코는 코로나 확진이 많은 상태이지만 다행히 학생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끝내고 왔다. 백신을 맞지 않은 몇 학생을 위해 근처 보건소와 협의 중이다.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 같다.

아내와 나는 신입생들의 이름을 암기하려고 애쓴다. 학생들이 오기 전 각 기숙사 방마다 학생들의 배정을 마쳤다. 전 교생의 침대 매트리스는 모두 새것으로 교체되었다. 남학생은 한 방에 3명씩, 여학생들은 한 방에 4명씩 학년별로 골고루 배정하였다.

먼저 온 학생들이 각자의 숙소의 청소를 하고 재학생들은 방학하기 전 보관해 두었던 개인 침구 및 물품들을 꺼내 자기방 집 정리를 시작했다. 신입생들에게는 미리 준비해 둔 새 개인 침구와 학용품, 세면도구를 분배하였다. 짐들은 각자의 방에 두었지만, 당분간은 남학생 전체, 그리고 여학생 전체가 각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각 에어컨이 있는 큰 방에서 지내야 한다.

막바지 더위가 왔다. 여름내내 뜨거운 기온이지만 지금은 12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로 인해 각 방에서 자기가 어려워 매년 개학하면 몇 주간은 공동생활을 해왔다.

개학을 앞둔 이번 주간은 방학 동안 못했던 학교 곳곳의 정소가 이루어졌다. 각 교실, 대강당, 참고정리, 먼지 제거 등 재학생들이 솔선수범 하면서 신입생들을 잘 인도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제 월요일(13일) 입학식 및 개학식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2주간 전교생이 모여 강의실에서 성경 읽기가 진행되는 일이다.

오전 8시 강의 시간과 함께 시작하여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까지 학생들의 성경 읽기는 2주간 계속된다. 그 후에 3주 차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13일부터 새벽기도도 함께 시작된다. 오전 5시 30분부터 강의실로 모여 개인 묵상을 하다가 6시에 새벽기도회가 학생회 주관으로 모든 순서를 학생들이 순번을 정해 담당하며 진행된다.

여학생들의 빨래터가 오래되어 많이 낡았는데 재학생들이 오자마자 새 빨래판을 설치하고 빨래터를 다시 멋지게 만들어 여학생들에게 선물했다. 강단 뒤쪽 큰 벽에는 대형 멕시코 지도가 걸렸고, 그 지도 위에 멕시코에서 연결 지어 곳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의 사역지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지면들이 붙여졌다. 학생들에게 사역의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새 학기를 준비하는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장로회 신학대학”은 여름의 끝자락을 잡고 따들 땀을 흘리며 오늘도 뜨겁지만 기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③ “헤롯 안디바(4)”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의 왕들을 영토와 권력 서열을 정해 보면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헤롯 대왕, 둘째 헤롯 아그립바(행12장), 셋째 헤롯 안디바(눅23:8), 헤롯 아켈라오(마2:22) 그리고 헤롯 빌립왕(눅3:1)순입니다. 그들의 칭호, 영토 그리고 로마황실과의 관계를 정리해봅니다.

헤롯 대왕은 집요한 권력욕과 정치 감각으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전 지역을 장악한 실재적 왕이었습니다. 헤롯 손자 헤롯 아그립바1세는 아버지 아리스토틀로스 가 할아버지 헤롯 손에 죽자, 어머니 베르게와 함께 로마로 피신했습니다. 어머니 베르게가 당시 로마 실권자들과 교제하였고, 아그립바는 훗날 로마 황제들이 될 황실 자제들과 함께 성장했고, 그들이 황제가 되자 할아버지 헤롯과 동등한 수준의 영토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헤롯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세례요한 참수와 예수님 재판에 개입했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마나엔(행13:1)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빌립과 아켈라오와 함께 분봉왕이 되었지만 이들이 추방과 사망으로 왕위를 떠나자 헤롯 안디바가 잠시 헤롯 가문의 유일한 왕으로 유대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여우로 비유했습니다. 마가는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 비행을 지적하여 사형을 당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죽인 이유를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요세푸스는 당시 민중이 세례요한을 대대적으로 지지하자 유대인과 세례요한의 민중 봉기를 두려워해서 그를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설공사에 몰두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대표적인 건축물이 갈릴리 호수 변 도시 디베라입니다.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 수도였던 파네이온을 고치고 확장하여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하려고 디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베라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서 예수님께서 두 기적(오병이어/요6, 물고기 153마리 잡는 기적/요21)을 베푸십니다.

헤롯 대왕의 영토를 분할했던 아켈라오는 권력욕과 악정으로 조기 퇴출당합니다. 헤롯 빌립은 선한 왕이었고, 백성과의 관계나 로마 황실과의 관계가 원만했지만 AD 34년에 죽습니다. 헤롯 빌립마저 죽자 그때까지 남은 유일한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왕으로 칭합니다. 형들의 퇴장으로 분봉왕 안디바가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지역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케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말다케에서 태어난 형은 베들레헴 지역을 관장한 분봉왕 아켈라오(Herod Archelaus)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다른 이복형들처럼 로마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아들들 즉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아켈라오, 빌립, 안디바 등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13세에 로마로 보내서 인질겸, 유학생으로 로마의 머무르다가 17.8세에 유대로 복귀하게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어린 시절을 유대 땅에서 마나엔(행13:1)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던 아들들을 믿지 못해서 사형을 시킵니다. 사랑했던 아들들 알렉산더, 아리스토틀로스, 그리고 안티파터를 사형을 시킵니다. 이렇게 형들이 죽자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서 돌아와 권력을 승계하여 왕으로 취임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로마의 교육 덕분에 아주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쳤고, 유대인들의 종

교와 관습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교활하고 악한 통치자였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질타를 받았던 왕입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세운 몇 개의 도시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세포리와 디베라입니다. 세포리는 성경에 없지만 안디바 시절 갈릴리의 최고법원인 산헤드린 위치합니다. 이 세포리는 헤롯 대왕 시절에 군사 도시였고, 디베라를 건설하기 전까지 안디바 왕궁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 디베라를 건설합니다. 이 디베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폴리스 형태의 헬라적인 도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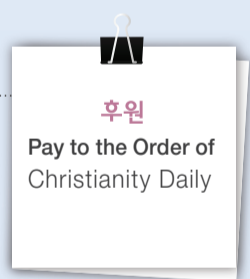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라는 책을 쓴 달라스 신학교 신약학 교수 해롤드 호너(Harold W. Hoehner)박사는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디베라가 여호수아 19장 35절에 등장하는 락갓이라고 합니다. 안디바가 건설한 디베라는 상업과 무역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이 도시를 당시 티베리우스황제 이름으로 디베라로 부르며 황제의 환심을 사려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나비테이아 왕 아레타(Aretas) 왕(고후11:32)의 딸 피살리스와 결혼했습니다. 무난한 결혼생활을 하던 그는 이복동생 빌립부부와 함께 묶였습니다. 이 만남에서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반합니다. 권력지향적인 헤로디아와 의기투합해 둘은 결혼합니다. 이에 분노한 아레타 왕이 침략함으로 헤롯 안디바는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가 황제의 든든한 지원으로 ‘왕’이 되어 돌아오자 그의 누나 헤로디아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녀는 남편 헤롯 안디바에게 로마 황실에서 정식 ‘왕’의 칭호를 받아 오도록 충동질했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로마 칼리굴라 황제는 안디바를 폐위시키고 추방시킵니다. 이로서 헤롯 안디바는 형 아켈라오처럼 폐위되고 형이 추방되었던 곳(현재 프랑스의 골(Gaul)지방)으로 추방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안,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7.2 강진, 열대성 폭풍

아이티 긴급 구호 요청

규모 7.2의 지진과 폭우를 동반한 열대성 폭풍으로 최소 1,419명이 사망하고 6,900명이 부상했으며 150만 명의 집이 파괴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간이 건물과 천막으로 구성된 아이티 마을은 거의 폐허 상태여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UN과 함께하는 월드쉐어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국제 구호 NGO단체입니다. LA 노숙자 지원, 아이티 쓰레기 마을 아동지원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특별기고] 비대면 예배의 문제점(2)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교회론



1장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슬프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놓고, 정부 방역 당국과 교회 사이에 점점 대립하는 양상이다. 전염병을 관리하는 정부 당국자들이 집회 금지령을 발동하여 교회의 모임을 제한시키고 있다. 금지 조치를 강요하는 정부에게는 다소 유리한 명분이 있었다. 2020년 초, 대구 신천지 집회는 불특정 다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진원지 역할을 했었다. 이들은 이미 사이비 재림 교주를 따르는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인데, 비상식적인 행사들을 진행하여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로 한국교회는 거의 다 예배 금지 조치에 호응하여 방역대책에 협조하게 되었지만, 거의 2년 가까이 오랜 시간이 경과 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아예 일부에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라고 비난하는 입장도 맞아야 할 정도이니, 참으로 교회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1.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 소망을 품다

참되고 올바른 예배는 성경에 지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적합한 장소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한다. 모든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의 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성도 간의 교제와 격려를 나누는 가운데서 힘을 얻는다.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심적인 지원을 받으며, 영적인 성숙과 도덕적 덕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통해서 성경적 교훈을 받아야 한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정통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집회들과 기도 모임들도 상당히 많다. 경건한 훈련으로 위장을 한 사이비 단체들의 모임도 있고, 이단적인 교리로 속이는 자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집회를 갖기도 한다. 한 동안 세상을 흐드는 세력처럼 보

였던 신천지의 이만희, 전도관이나 구원과 등등 많은 가짜들의 최후를 목격한 바 있다. 참된 성도들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양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도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주신다. 모이는 습관을 실천하는 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양육을 받는다. 이로 인해서 성도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와 경건한 기도회, 소그룹 성경공부, 제자훈련 과정, 봉사담당자로서 맡은 부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연습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이 가장 결정적인 요체이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겁을 주거나, 압박을 하지 않으셨다. 진심으로 받은 바 은혜가 넘치고, 헤아릴 수 없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향해 경배를 올리는 것이다.

특히 각자 소속된 지역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역시 기계처럼 시간표에 따라서 나아가가 단지 출석했음을 확인받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반드시 주일날 오전시간에만 어떤 형태로든지 참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다. 일주일의 첫 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뿐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편리한 방식대로 아무 곳에서나,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예배를 올리는 것으로 그저 일시적이며, 임시적인 비상상황에서 해결 방안일 뿐이다.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면, 개별 성도가 혼자서 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된다. 컴퓨터나 동영상 매체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편리함과 나태함에 젖

어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는 안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선한 영혼을 가꾸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직장이나, 병원이나, 음식점이나, 마켓 등 자신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어떤 악조건에서도 직접 방문하고 있다. 필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주일예배를 포기하고 오지 않았던 날을 기억하고 있다. 너무 많은 성도가 결석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성도는 교회당 옆에 병원에는 출근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나오지 않았음을 목격한 적이 있다. 그렇다. 필자는 그 주일에 많은 반성과 함께 새로운 다짐을 했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한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올리자고 결심했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처럼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않고 열심을 낸다.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연 예배를 올리는 일에도 것처럼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일에는 정도의 열심히 없다면, 나쁜 습관에 젖어있는 것이다.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hope)을 품고 살았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굳게 확신했고,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깨어있으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다. 이들의 종말론적 신앙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에, 승리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회로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성도들이 가진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요, 이러한 영적인 소망은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성도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미래의 정점에 두고 있다는 말이다. 참된 소망은 믿음과 사랑으로부터 분리할 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진다. 예를 들면, 수능시험을 앞에 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본 미래의 소망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체념적이거나, 패배주의에 빠졌던 것이 아니다. 주님의 재림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면서, 내일에 선한 소망을 품고 살았기에, 기쁘고 즐거운 기다림으로 (positive expectation of good future) 가슴이 벅찼다. 마치 신앙을 기다리는 신부의 준비상태와 같았다. 다만, 신앙이 더디 오게 되면서, 즐거움도 하고 나태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마 25:5).

한마디로 압축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나누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 날”을 향한 설레임을 갖고서, 함께 예배를 올리고 서로 신앙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와 교육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나 신앙이 더디 오면서, 매일같이 동일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버티며 살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에 대해서는 헛된 의구심이나 왜곡된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임을 갖고서 바른 교훈을 전달하면서 힘을 불어넣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종말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히브리서 3장을 살펴보자. 이 서신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심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 서두에서부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히 1:3). 따라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또한 “바라보라”(히 12:2)고 권고한다. 유대 전통과 구약성경에 탁월한 이해를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과 다시 오실 미래적 희망

을, 기독교론과 종말론의 조화가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날”이 바로 가깝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라고 권면한다. 참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집회를 거부하는 자들은 잘못된 습관에 빠진 자들이다.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2-25).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임에 나오기를 권면하면서 살았던가? 어쩌서 그들은 모임을 폐하려는 자들의 “습관”과는 달리, 열심을 내고 부단히 모이는 일에 대해서 다짐을 했던가? 왜 모이지 않는 자들의 습관이 나쁜 것인가?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만 살 수 있는가?

위에 나온 구절은 성도가 다른 기독교 신자와 인간적인 접촉 혹은 친교 모임을 더 많이 하라고 촉구하거나, 차를 마시고 담소하면서 친숙해진다거나, 성도 사이에만 식사를 자주해서 깊이 사귀는 것만으로는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라는 조언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기독교의 종말신앙을 배경으로 하고서 모임을 갖도록 촉구하는 말씀이다.(계속)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명예교수
조직신학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up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김형석 교수 “文, 항일운동 하듯...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은가”

인터뷰서 “악화된 한일관계 방치, 젊은이들 희망 빼앗는 것” 비판

올해 101세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압박을 비판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면서, 자유가 없어져 진실과 정의, 인간애가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형석 교수는 8월 31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이 하는 일이 정의로 여겨지는 북한·중국 등 공산주의 체제와 같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에 살다 1947년 남한행을 택한 김 교수는 “당시 북한이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70여 년 전 내가 평양에서 겪은 자유와 진실의 상실,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강권 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민주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의 강권 사상이 21세기에 도 남아 있는 것은 큰 불행”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 의지해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50년 뒤에는 이게 큰 실수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항일 운동을 하듯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해방 후 친일파를 배제했던 북한과 다르게 한국은 친일파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통성에서 뒤진다는 역사관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미래로 향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과거를 질질 끌며 해결하지 못했다”며 “악화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일은 향후 20~30년 한일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선 8월 27일 동아일보 칼럼에서도 김 교수는 “일제 35년의 굴욕과 해방, 6·25의 역사를 거쳐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권력사회를 범지구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4, 5년 동안 다시 국격은 떨어지고, 국민들은 자부심을 잃어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 책임을 고정관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기득권 세대와 정치계의 후진성과 무능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교수는 “광복절을 전후한



김형석 교수.

한 달 간에도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에서 있었던 올림픽 경기만 해도 그렇다. 우리 대통령이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만 한 아량과 지도력만 있었다면, 잡다한 정치·경제 관계를 미뤄두고 일본 총리에게 축하와 협조의 예를 먼저 갖춰 일본 정치인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량을 보여주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비슷한 시기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전화가 개통됐다고 여당과 청와대가 얼마나 떠돌았는가. 희망의 문이 열릴 듯 일

있다는 북측의 엄포였다”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 주재하는 중국 대사까지 한국 정부에 훈시 내릴 정도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형석 교수는 “광복절,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되살아나기를 염원했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정부는 행사를 위한 의무적 식연을 꾸렸고,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역작용으로 나타났다”며 “대통령 경축사는 계속 들어오던 업적 자찬이었고, 누가 책임질지도 모르는 미래의 꿈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일본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성명이었는데, 잘못은 일본에 있다는 인상이다. 그동안 대일 정책에서 우리는 명분도 찾지 못했고, 일본의 경제 제재는 기업들이 걸리지게 되었다”며 “국민들을 놀라게 한 것은 광복회장의 기념사였다. 친일파를 끝까지 숙청하는 것이 최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런 자가당착의 성명을 듣는 국민들로서는 믿고 따를 지도자가 없어진 셈이 됐다”고 했다.

1920년 평북 운산 출신인 김형석 명예교수는 일본 조치(土智)대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1954~1985년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대용 기자

“아신대, 3년 후 50주년... 설립 이유와 목적 기억하자”



취임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신대

제9대 이상호 이사장·제11대 정홍열 총장 취임예배 드려

아신대학교(ACTS)가 31일 오전 경기도 양평의 본교 강당에서 제9대 이상호 이사장과 제11대 정홍열 총장의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협력 공동체(로마서 8:26-2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박종순 목사(전 동문회장, 충신교회 원로)는 “함께하라” “하나가 되어라” “협력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사장과 총장, 교수와 학생, 학교와 교회 모두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 협력하면 살고 협력하지 못하면 지리멸렬할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바른 신학이 뭔가. 성경신학이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와야 하고 성경에서 학문이 나와야 한

다. 성경이 신학의 모판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뿌리 내린 신학, 복음을 드러내는 신학, 교회를 지키는 신학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아신대에는 장점이 많다. 그 중 하나가 교단 간섭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매우 자유롭다”며 “그런가 하면 약점도 없지 않다. 이탈 가능성이 있다. 탈복음화할 가능성이 있고 탈교회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해야 한다. 아신대의 본래 출발은 아세아 교회의 지도자 양성이었고, 그 여세를 몰아 세계 교회의 지도자를 키워내자

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2의 사도행전 운동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며 “그 비전을 다시 품어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 담임)는 취임사에서 “2024년 5월 1일이면 아신대가 설립 50주년을 맞는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지켜주셨다고 믿는다”며 “아신대는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함께 헌신해 만들어 낸 학교다. 그렇기에 학국교회의 공동유산”이라고 했다.

제11대 정홍열 총장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우리 학교가 시작된 지 47년이다. 3년 후면 50주년, 회년을 맞게 된다”며 “그래서 이번 취임식 주제를 ‘회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로 삼았다. 지난 47년 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 희생하며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선 정필도 목사(부산 수영로교회 원로)와 서정운 목사(장신대 명예총장)가 영사로 축사했으며, 아신대 이사인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담임)가 축도했다.

김진영 기자

NCCK 등, 미 바이든 대통령에 서신... “대북제재 재고해 달라”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들은 서신에서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이 서신을 보낸다. 우리는 제재의 근거인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제재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재 중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제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현재 제재의 직간접적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북쪽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별히,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 및 이들을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만남을 막는 정책은 갈등과 분열을 견고하게 할 뿐”이라며 “따라서,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 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백악관

노형구 기자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매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경리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프,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옆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룩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호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기고, 무릎통증
- 팔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배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JENNY RAE LE ROUX

주지사 후보



- 글로벌 비즈니스 임원 및 기술 기업가
- 아이비 리그 MBA 및 전 Bain 컨설턴트
- 세 아들의 엄마

hello@jennyraeca.com www.jennyraeca.com
 Text Recall to 33777 T. 530.691.0434

PLATFORM

캘리포니아 위기 :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거주 사람들을 과소평가
 The California crisis: Undervaluing our greatest resources - our people

결과 : 기업과 가족이 놀라운 속도로 떠나고 있음
 The result: Business and families are leaving at an alarming rate

해답 :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일하고, 숨쉴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합시다
 The answer: Build a future where we can Live, Work, and Breathe in California

라이브 Live

- 세계 수준의 교육 World-class education
- 주택 공급 확대 Increased housing supply
- 공공 안전 지원 Supported public safety

작업 Work

- 심한 규제를 제거 합니다 Remove over-regulation
- 비즈니스 수수료 감소 Reduced Business fees
- 낮은 사업 세금 Lower business taxes

호흡 Breathe

- 관리된 숲 Managed forests
- 안정적인 전원 공급 장치 Stabilized power supply
- 증가된 물 저장 Increased water storage



"캘리포니아
 미주한인공화당은
 Jenny Rae Le Roux 후보를
 지지합니다."

JENNY RAE
 GOVERNOR

테네시 의료진 3천명 “성전환 수술 강요, 양심보호법 위반”



2021년 6월 5일 워싱턴기념비 인근 실반 극장(Sylvan Theater)에서 탈동성애자들을 위한 '자유와 행진'이 열렸다. ©Bree Stevens

테네시 주에 거주하는 3천명의 의료진을 대표하는 협회 2곳이 바이든 행정부의 성전환 수술 준칙이 연방정부의 양심보호법에 위반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와 가톨릭의학협회(Catholic Medical Association)는 지니 다소우 박사와 함께 채터누가의 테네시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성차별금지법 1557조'에 대한 미 보건부의 해석인데, 이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중 유방절제술, 골수성형술, 난형수술(고환제거술) 등 선택적 성전환 수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미 보건부,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 로빈슨 프리즈 보건부 수석 대리 등이다.

고소장은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나 양심의 거리낌과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약을 처방하고,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환자에게 대해 말하고 기록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성전환 수술준칙으로 알려진 미 보건부 규정이 행정절차법, 종교자유

회복법,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 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보건부는 지난 5월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른바 성전환 수술준칙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폐지했다.

당시 베세라 장관은 발표에서 "성소수자(LGBTQ)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차별이나 간섭 없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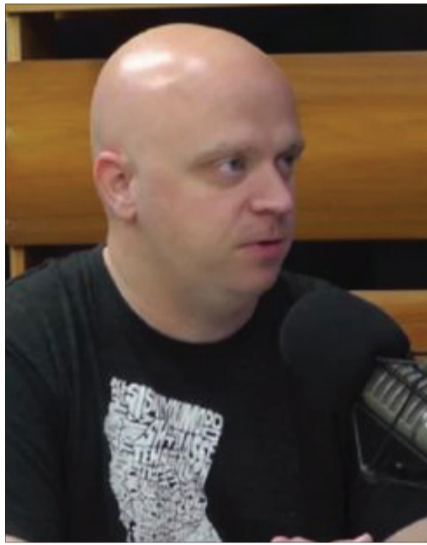
베세라 장관은 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했었다.

원고측 법적 변호인인 자유수호연맹(ADF) 라이언 벵거트 수석 고문은 관련 성명을 내고 "미 보건부가 성전환 수술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13세를 대상으로 한 호르몬 처방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동성애자에게 양육된 남성, 기독교 비판하려다 예수 영접

“동정심 갖는 것과 가치관 버리는 것은 구분돼야”



지난 2017년 9월 델러스신학대학교 팻캐스트 '더 테이블'에 출연한 칼텐바흐 작가. ©델러스신학대학교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은 얼마나 더 끔찍할지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10대 시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칼텐바흐는 16살 때 기독교에 반박하기 위해 성경공부에 참석했다. 그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충격적으로 성경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모든 것이 변화됐다.

그는 "난 기독교인이 되었고, 성에 대한 나의 견해도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결혼 생활을 통해 성적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하도록 지으셨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그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앙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그의 보호자들이 그를 집에서 쫓아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앙 여정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 그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의 보호자들도 말년에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칼텐바흐는 결혼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붙들고 있지만, 신학적 신념이 결코 다른 이들을 비하하는 촉매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다른 주장들도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찾고 모든 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있으며, 자신의 신간 'Messy Truth: How to Foster Community Without Sacrificing Conviction'에서, 신념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고 있다.

칼텐바흐는 '에디파이'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정심을 갖는 것과 가치관을 버리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공감대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상대를 만만하게 보라는 것도 아니다. 저에게 공감은 겸손과 비슷하다. 공감이 누군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부터 복음에 닿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문화를 지켜보는 것이 어려웠지만,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p> <p>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김요찬강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일-토)</p> <p>권영국 담임목사</p> <p>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p> <p>서보천 담임목사</p> <p>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p>
<p>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p> <p>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p> <p>김경환 담임목사</p> <p>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77-7766 / www.gwctorrance.com</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p> <p>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이중용 담임목사</p> <p>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F.(310)530-8400/cornerstonetv.com</p>
<p>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30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p> <p>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p> <p>고창현 담임목사</p> <p>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p> <p>오전 9:45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p> <p>김우준 담임목사</p> <p>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름찬양예배 오후 2:00</p> <p>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의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일-금)6:00(토)</p> <p>구봉주 담임목사</p> <p>감사한인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7:30</p> <p>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새벽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p> <p>오병여 담임목사</p> <p>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영)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7:30</p> <p>수요예배 오후 7:30</p> <p>백정우 담임목사</p> <p>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p>	<p>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p> <p>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p> <p>안창훈 담임목사</p> <p>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오전 11:20</p> <p>안성복 담임목사</p> <p>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코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p>	<p>주일예배 오전 11:30 아침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화-토)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p> <p>림학춘 담임목사</p> <p>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p> <p>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이서 담임목사</p> <p>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p>	<p>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p> <p>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창년예배 오후 2:00</p> <p>김한요 담임목사</p> <p>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한여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p> <p>박신웅 담임목사</p> <p>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 대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p> <p>한기홍 담임목사</p> <p>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연구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일-토)</p> <p>남성수 담임목사</p> <p>오렌지카운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를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om</p>	<p>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일-금) 오전 6:00(토)</p> <p>박 훈 담임목사</p> <p>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p>

<p>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p>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p>
--	--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아프간 기독교인 집단 학살 가능성 제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면서 기독교인을 비롯해 남겨진 이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법정의견(ACLI)에 기고한 글에서 이 나라의 소수 기독교인에 대한 '잠재적 대량 학살'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독교인 대량 학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탈레반이 기독교인 명단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탈레반이 공개적으로 수용한 사리 아법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무슬림 개종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수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 수는 5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추산된다. 자유호동맹(ADF)은 "(아프간의) 자유에 대한 전망이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ADF는 유엔 회원국들에 "소수 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조정된 조치를 취하고 박해를 두려워하는 아프간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ADF 제네바 유엔 법무관 조르지오 마졸리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비참한 전망이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 남성, 여성, 어린이들을 박해와 압제를 피해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전 국무부 장관. ©미 국무부 제공

이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살인, 괴롭힘, 협박 등의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유엔 회원국과) 국

제사회가 이러한 박해받는 소수자들에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탈출을 위한

여건을 보장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北 고아·꽃제비들에 탄광 노동 강요”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Web TV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 서한 통해 우려 나타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지난 6월 29일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내 고아와 18세 미만 아동들의 강제노동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콤바 볼리 베리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공동 작성한 이 서한은 60일 뒤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 5월 고아 교육 시설인 동해학원과 서해학원 등의 졸업반 원아들이 농장과 탄광 등 어려운 작업장에 지원했다는 보도 내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다.

“고아들이 이런 일에 지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북한 당국은 흔히 최고 지도자와 조국에 대해 충성을

보여준다는 명분으로 고아와 꽃제비들에게 국가가 주도하는 건설 현장이나 탄광에서 노동을 강요하는 혐의들이 있다”는 것.

아울러 북한에서 중학교로 불리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이 17세이기 때문에 고아들도 17세 미만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방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노동에 동원하는 것은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VOA는 전했다.

그러면서, “18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 것은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고 비판했다고.

VOA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31조를 통해 아동 노동 금지 기준을 16세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통해 18세 미만을 아동으

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별보고관들은 북한의 탄광이나 작업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부상 위험, 임금 미지급 문제, 학생들의 성분과 지역에 따라 학업의 최대 40%를 육체적 노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지적 등 교육권 침해 혐의 등에 대해 자세히 열거하며 인권 침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북한 고아들의 자원 노동 등 아동 노동의 심각성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연계망 내 성인과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력 사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덧붙였다.

북한 지도부는 그러나 관영매체를 통해 “어머니당의 품속에 안겨 행복만을 받아 안으며 자라난 원아들이 당의 사랑에 천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할 맹세”로 탄광과 협동농장 등에 탄원(자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교황 “아프간인들 위해 금식·기도하자”



프란치스코 교황. ©픽사베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도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위한 기도와 금식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교황은 23일 최근 아프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황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통받는 아프간인들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세계는 이에 무관심할 수 없다”며 “아프간 상황을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주에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이들과,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이들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했다.

교황은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대화와 연대가 평화롭고 형제애를 가진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기도, 참회에 힘을 쏟고, 함께 금식할 것을 호소한다. 지금은 그리 할 때이다. 난 진지하다.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금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은 카불에서 15,000명을 대피시킨 후 항공편을 중단, 입국 자격이 있는 수백 명이 현지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탈레반은 8월 31일 이후 아프간들의 출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영국은 이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크레블리 중동 장관은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정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프간 국내 및 해외 여행을 모두 추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중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교육(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포스트 박사 T(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843-0301, Fax: (323)8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p>	<p>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p> <p>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p> <p>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p> <p>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받음과 나눔의 예술

밀물처럼 축복이 밀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받아야 합니다. 가능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밀물의 때가 지나면 썰물의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썰물의 때는 바닷물이 빠져 나가는 때입니다. 지혜는 밀물의 때에 받은 것을 잘 키워 썰물의 때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계절처럼 인생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번영의 때가 있고 역경의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잘 되거나, 어려움만 늘 계속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받음과 나눔은 삶의 예술입니다. 받기만 해서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고 축적하면 그 축적한 것의 노예가 됩니다. 받지 않고 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받지 않고 주기만 하면 고갈됩니다. 받음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임합니다. 좋은 것들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잘 받는 길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찾아오거나, 복이 임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선물처럼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때 더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잘 받는 길은 나눔을 위해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받으면서 나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받는 것만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한 사람은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능을 소유한 사람은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기 위해 먼저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 13:12)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후에는 나눔 줄 알아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이유는 받은 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마크 네포는 받는 것만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확실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취하는 데 익숙해져 쌓아두기만 하면, 들음을 멈추게 된다. 둘 사이의 불균형이 자신과 주변을 오염시킨다. ... 그러므로 그저 취하고 습득하기만 하지 말고 받음의 역량을 키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장고'보다는 '도관(導管)'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마크 네포, 같은 책, 49쪽).

받는 것이 삶의 예술인 것처럼 나누는 것도 삶의 예술입니다. 나눌 때는 겸손히 나누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눌 때는 지혜롭게 나누십시오. 요셉은 7년 흉년 동안 곡식을 저장한 다음, 7년 흉년 동안 지혜롭게 나누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창 50:20). 하나님의 축복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눔을 통해 흘러 내보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 풍성히 임합니다. 주면 더 풍성히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눅 6:38). 받음과 나눔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의 20년 전 모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많은 분들이 SNS에 자신의 20년 전 사진을 올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20-30대의 젊은 분들은 20년 전에 아이들이었으니, 별로 흥미가 없지만, 40대에서 70대 분들이 너도나도 지난 추억을 회상하며, 경쟁하듯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잖은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알뜰한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씬한 몸매를 뽐내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심방을 가면, 대부분 테이블이나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의 사진,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그리고 여행에서 멋지게 폼 잡고 찍은 사진 등... 그렇게 사진 한 장으로, 지난 시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2년 전부터 '디지털 액자'를 구입하여, 추억의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지나가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때마다 하나씩 올리고 있지요. 나이가 드셔서 사진을 잘 찍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오늘이 내일보다 젊고, 오늘이 내일보다 예쁘다!”

하나님의 액자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그런데, 이렇게 파일 하나에 담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하시더군요. 장례식에 정리된 사진을 보아도, 그리고 집 벽이나 테이블에 올려진 사진들도, 대부분의 교인들의 사진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집니다. 하나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또 하나는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쩌면 이민자들의 삶이 그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이 더욱 교회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시간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생전에 설교하시던 모습을 영상과 육성으로 보고 들으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생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남겨 놓아서 먼 훗날, 하나님 부름 받으셨을 때, 함께 보고 들으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젊고 오늘이 내일보다 아름답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액자에 가장 아름다운 오늘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입에서 사도 신경이 터져 나온 그 순간 트랙터의 앞바퀴가 토기 꼬리만 한 나무 뿌리에 걸리며 푹 멈춰 섰다. 와락 안심이 되면서 내 입에선 또다시 놀라운 고백이 튀어 나왔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였도다.” 그리고는 나는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고 고쳐 말하며 울부짖었다. 아직 우리는 트랙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무거운 트랙터가 나무 뿌리에 걸렸으니 언제 다시 계속 밀려 굴러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속히 트랙터에서 탈출해야 했다. 나는 정신을 잃고 거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야 임마, 넌 진짜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 야 진짜로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이끌고 오라. 하나님이고 뭐고 360도 돌려차기로 고꾸라뜨릴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참으로 무서운 죄악인 줄 그때

는 몰랐다. 이렇게 나는 온갖 욕설로 패악을 부린 뒤에 친구가 내민 종이에 맹세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 그리고 비료를 받아 돌아오는 길에 내가 말한 대로 360도 돌고 또 돌다 겨우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당시 내가 자필로 쓰고 손가락 지장까지 찍은 맹세문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나 J는 이 시각부터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내 뼈를 깎아내고 살을 찢어 가루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이 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1996년 3월 18일 J.”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글을 쓰면서도 속으로는 탄생각을 했다.

“하나님은 무슨 일어 죽은 하나님! 불쌍하기 그지없는 어린 동무들이 하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을 뿐이지, 세상이 참 어수선하게 변해가는구나. 망할 징조로다.” 어쨌든 나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 농장에 배정된 비료 전량을 받아서 콧노래까지 부르며 길을 떠났다. 그런데 산중턱을 깎아 구불구불 뒀은 길에서 내가 탄 트랙터가 갑자기 숲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더니 길가에서 이탈하여 사정없이 산 아래로 360도 회전하며 돌고, 돌고 또 돌며 굴러 내렸다. 트랙터 안에서 나 역시 360도 돌려차기를 거듭하며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하는 순간,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지난 3일 동안 목이 터지도록 외운 사도신경이 흘러나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입에서 사도신경이 터져 나온 그 순간 트랙터의 앞바퀴가 토기 꼬리만 한 나무 뿌리에 걸리며 푹 멈춰 섰다. 와락 안심이 되면서 내 입에선 또다시 놀라운 고백이 튀어 나왔다. “하늘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였도다.” 그리고는 나는 “아닙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고 고쳐 말하며 울부짖었다. 아직 우리는 트랙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였다. 무거운 트랙터가 나무 뿌리에 걸렸으니 언제 다시 계속 밀려 굴러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속히 트랙터에서 탈출해야 했다. 나는 정신을 잃고 거

의 사경을 헤매는 운전사를 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힘을 주었다. 그 순간 트랙터가 움찔하며 나무 뿌리가 우지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고 운전사를 버리고 나만 내려서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신 트랙터를 다시 놓아 우리 모두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리를 스친 생각을 나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신 분이야.’ 그리고 다음 순간, 친구와 어린 선생한테 지껄여대던 나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생생하게 떠올랐다. (계속)

지하숙소복원과 복벽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순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_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벽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공력의 심판날에

고린도전서 3:10-15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힘쓰고 공들여 놓은 것을 공력(功力)이라 합니다. 이 공력이 심판 날에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곳으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항구도시이다 보니 온갖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고 음탕 방탕하고 타락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생활여건이 어려움이 없고 여유 있는 생활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영적인 내세소망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육신의 세상 조건으로 교회분위기를 휩쓸거나 자기 존재를 의식시키려는 폐단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 분위기를 유도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인맥을 형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파, 게바파 또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1.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말겨진 소임에 충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심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보증을 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더 많은 영혼이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영적체질 신앙을 가꾸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격정하시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실망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지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만조입니다.

고린도전서3:1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중략)...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3장 편지 모두에 전제하는 서술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바울의 시각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체질 신앙이 아니라 육에 속한 상태로 아직도 죄인 그대로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 더 많이 구원 얻도록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 설 자리 만들고 행세할 수 있는 자리 만들며, 교회분위기를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 행사하기를 목적으로 돈도 뿌리고 선물도 사주고 자기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휩쓸리는 영혼도 천국가가 참으로 어렵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상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짓으로...(중략)...못하리라”(고전3:2)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중략)...행함이 아니라

요”(고전3:3)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곧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빨리 생명의 씨가 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가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가 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온전히 성령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가기 위한 목적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교구단위로 교역을 맡아 감당할 때에 열심히 물을 주고 씨가 나게 해서 그 씨가 자라고 결실하도록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느 교역자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양떼인 여러분사이에 자기라는 것이 끼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양떼를 예수님께 직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되 깊게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분과 연합해서 그 분의 나라 하늘나라 성령으로 인도받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회장이고 목자라 해도 여러분과 예수님사이에 중매쟁이 역할 외엔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된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했습니다. 중매는 신랑감 신부감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도록 소개시키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넘쳐서 부부가 되어 짝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매장이 그 중간에 계속 끼어있다면 도움이 안 되고 훼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릴 때는 어머니 품에 맴돌고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닙니다. 좀 더 자라서는 이성애 눈을 뜨고 짝을 찾느라고 연애했 때에는 왠지 부모님이 부담스럽고 장애물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관계원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에게 데려다 맡기신 것은 목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적 표현으로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께 중매 서라고 목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준급 이상으로 성숙되게 되면 목자가 없어도 자기 혼자기도, 봉사, 전도, 구제도 하고 자기가 모신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랑도 하고 증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중매자들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옆에 몰려나 있으면서 그 구원 얻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기대가 새로워져서 더 알뜰한 관심으로 세밀히 보살펴주시고 예수님나라에 더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중략)...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교회는 39년전 5월 17일 옥수동에서 골방하나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다. 삼각산에 가서 며칠 단식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 내외 둘이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시어 목자에게 책임 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회개하며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결실로 하늘나라 들어보내야 한다는 사명에 책임을 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2.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그리스도의 심장 소유!

이 책임 목회라는 중심에는 그리스도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목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애를 쓰며 가르쳐도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지 하나님은 구분을 지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3:15에 보면 “이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 터 위에다 자기 믿음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중략)...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공들여서 만들어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지 아니할 보석이 있고 불에 금방 타버리고 재가 되어 금방 흩어지고 말 나무, 풀, 짚으로 세우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중간 심판 때에 받게 되는 것인데 그날에 나무나 풀, 짚처럼 활활 타버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불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분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불변 무한한 존재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믿음의 공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었고 회개도 했고 구원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공력을 쌓는데 너무나 풀이나 짚 같은 것으로 대충했고 생활은 다른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교인들과의 교제도 적당히 하면서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1992년도부터 이단들이 시한부종말론을 가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성인 사람들을 이끌어 내서 재산을 다 기증하게 하고 남의 재산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이 예수님을 믿되 부담없이 적당하게 믿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부담없이 적당하게 교회 생활했다는 것은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결부시키고 자기수고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력으로 주님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보면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이 영원히 남아있게 하기위한 가장 보람되고 알찬 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잘 감당하십시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자기 공력을 타 없어질 것이 아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공적 쌓기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영원 불변의 공력 쌓기를 새 출발하며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워싱턴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시카고 기독교방송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프 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전자동 Z-UP 전동거꾸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디스크는 반듯하게 제자리로 가라!

하루 5분으로

허리 통증, 손발 저림 통증, 모든 통증 해결!

영국의 뉴캐슬 대학에서 임상실험으로 허리 수술을 예정했던 환자의 80% 이상이 척추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후 유럽에서는 척추질환 치료 DP수술 대체 치료로 Z-UP 전자동 전동거꾸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형 전자동 전동거꾸리 Z-UP

Z-UP 전자동 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웨스턴빌, 1가와 2가 사이)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	--------------------------------	--------------------------------

213-434-1170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빠름 대신 '바름' 선택하는 삶**

우리의 한계 넘어서게 하는 힘, 순종

**빠르게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야 한다
불품없는 인생? 바르게 보면 아름다워
빨리 배운 것 치고, 오래가는 것 없더라**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가는 인생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된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얼마전 '아이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이창명과 이상인이 출연했다. 이 둘은 2000년대에 방영된 <출발 드림팀>이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둘은 현재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다.

방송 중 이창명의 무리한 요구로 팀블링을 하던 이상인은 발목 골절을 당하게 된다. 부상으로 인해 6개월 동안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 6개월 후, 다시 방송에 복귀한 이상인은 이창명에게 섭섭한 마음을 담아 그동안 어떻게 연락 한 번 없었냐고 물었다. 그때 이창명은 "내가 좀 바뻐서"라고 대답한다.

당시 인기가 좋았던 이창명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형제처럼 지냈던 이 둘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처럼 지내야 했다. 방송을 통해 화해했지만,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빠르게 가는 인생은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된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본다는 말은 바르게 본다는 말이다. 바르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세상에서 불품없는 인생도 바르게 보면 아름다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빠르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남들보다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 안절부절못하며 불안해한다. 빨리 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한다.

하지만 빨리 배운 것 치고 오래 가는 것 없다. 빨리 배운 것치고 제대로 된 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닌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빠른 길 선택 아브라함, 이스마엘 얻어
한계 갇힌 인생, 돌파구는 하나님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순종을**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바른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너무 느리게 보인다.

더 빠른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믿음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르게 가는 것이다.

이 교훈을 얻기까지 큰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빠른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도 빠른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순종 훈련이다. 저자 박명수 목사는 순종이 절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목사인 자신도 날마다 순종이 어렵다고 말한다.

"순종이 쉬웠던 적은 없다. 목사인 나도 날마다 순종이 어렵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라고 고백한다."

저자는 순종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고 말한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순종으로 한계를 뛰어넘었다. 순종할 때 한계를 돌파한다.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 인생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 듯이 변하지 않는 삶은 수고와 인생을 낭비한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다."

저자는 한계에 갇힌 인생에 돌파구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한계를 돌파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장소에 갈 수 있었다. 순종이 아브라함의 한계를 돌파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의 장소로 떠밀기 위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다.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한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결심하고 결정해도 넘어진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버티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버티지 못해도 버리지 않으신다."

늘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잘 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느리지 않을까?" 저자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흔들릴 때가 많다. 전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매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많다. 그럴 때는 일상을 붙들어야 한다.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고민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믿음의 일상을 이어나가면 된다."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다. 수많은 실수를 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결코 빠른 삶이 아니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가니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바르게 가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인생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방향을 알지 못해 방황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방향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빠름이 아니라 바름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빨리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좁아진다. 조금씩 속속 빠리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

인생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닌 바르게 가는 것이다. 바르게 가면 아브라함같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를 통해, 빠름이 아닌 '바름'을 선택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
박명수
CLC | 248쪽

순종이 쉬웠던 적은 없다. 목사인 나도 날마다 순종이 어렵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라고 고백한다.

신앙생활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여정 속에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이 바로 "순종"이다.

이 책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 쉽고, 명쾌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림 'Psalm 5:7'(이하 Psalm57)의 첫 심글 '순종' 앨범자켓.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的一切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CHRISTIAN BUSINESS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몰티슈

몰티슈 주부제안
교회학교
마그네틱달력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옵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환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청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일찍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무료 (877) 580-2424
전화 (310) 538-33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DTV 미주기독교일보

미주기독교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산불·홍수까지, 재난으로 가득한 뉴노멀(2)

“정복하고 다스리라” 기독교 신앙, 환경 파괴의 주 원인?

종말 예언에 깃든 미래 위한 지혜는 무엇인가 인류, 미래의 재난과 고통 완벽한 극복 불가능 세계관과 삶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 일어나야 종말과 심판 예고하는 성경의 지혜 힘입어야

◆종말과 자연환경: 환경위기에 대한 반성과 성경의 종말론

서구의 대중문화 콘텐츠 가운데는 인류 전체의 종말을 소재로 삼는 작품이 흔히 발견된다. 이는 기독교 종말론이 서구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준 까닭에 벌어진 일이다. 이처럼 인류 전체의 종말을 다룬 작품 가운데 대다수는 극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둔다.

물론 <디즈 파이널 아워스>(These Final Hours, 2013)와 같이 아예 전체 인류를 한 사람도 남겨 두지 않고 멸절시키는 작품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종말을 다룬 작품들은 재난에서 살아남는 극소수의 생존자를 남겨두어, 인류의 존속에 대한 희망을 엿보게 한다.

<나는 전설이다>(2007)는 전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와 같은 괴물로 변해버린 가운데 극소수의 정상 인간을 남겨두고, <설국열차>(2013)는 요나(고아성 분)와 티미(마칸소니 레이스 분) 두 사람만 살아남는다.

<인터스텔라>(2014) 역시 멸망 직전까지 이른 인류에게 중력의 비밀을 알리으로써, 인류가 우주에서 다시 삶을 이어나가는 결말을 보여 준다. TV 시리즈 <레이즈드 바이 울브스>(2020)도 인류의 모든 지구자정 노력이 실패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인원만 탈출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에 자리잡게 된다.

이런 서사는 명백히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서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환란에서 구원받은 이들에 관한 예언을 예술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환경의 파괴와 그에 의한 인류의 궤멸적 타격을 염려하고 경계하는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이다.

세간에 널리 퍼진 오해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 신앙이 오늘날 서구 세계가 주도한 환경오염과 파괴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속설이 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자연환경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착취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의 진의가 세계의 파괴와 황폐화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본래적인 모습과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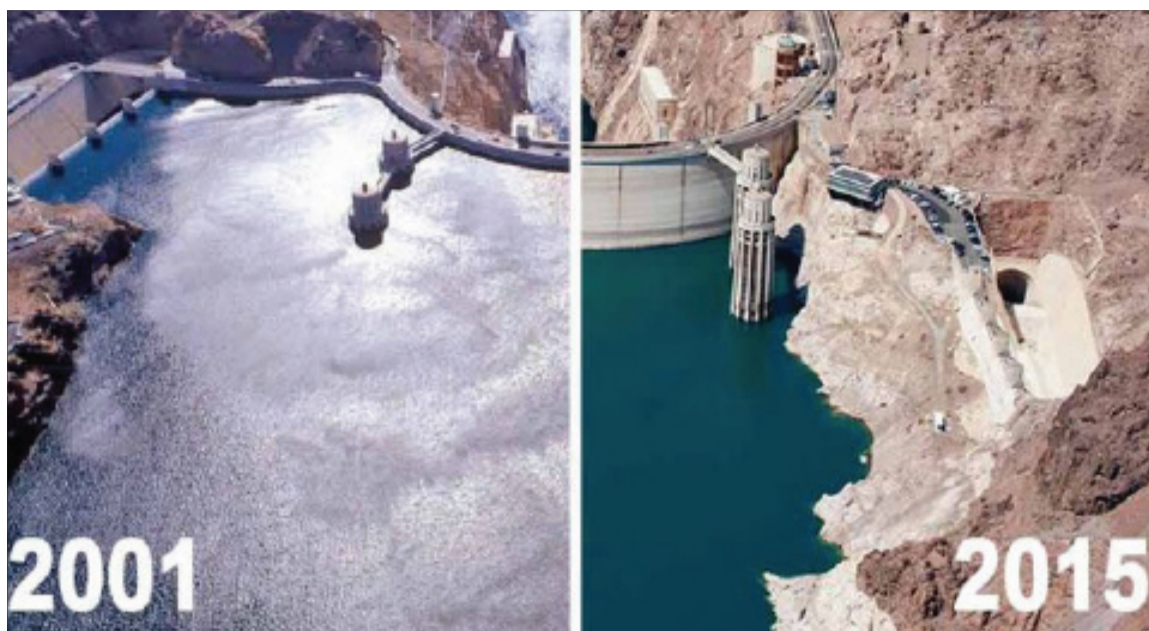
인류가 세상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든 주 원인은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탁해 오늘날 지구 환경이 이상 상태에 빠지도록 파괴와 착취 행위를 부추겨 왔다.

반면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통해, 인류의 미래 운명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물론 성경에 예언된 세계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서, 그 이면에 영적인 경륜과 권능이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가 주도하는 파괴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전우주적 심판이 단행되리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이런 경고는 인류가 현재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생태의 파괴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다.

현재 가장되고 있는 재해와 기근, 역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혹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 의한 것은 아닌지,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방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네바다-애리조나 주 경계점의 미드 호수(Lake Mead) 후버 댐 저수지 수위 비교. 뉴노멀을 특징짓는 전인류 차원의 재난 중 기근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NPS

◆신앙과 자연환경: 성경적 자연관에 담긴 환경 변화에 대한 지혜

환경 문제에 관한 반성과 방안 모색을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이들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에서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기독교적 문화 배경 때문이다.

반면 동양의 자연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에 대한 반성 및 대응 수준은 서구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활동에 의한 환경오염과 파괴가 심각하다. 여기에는 분명 특별한 사상적,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서구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달리, 동양의 자연관은 재난으로 인한 인류 멸망을 상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동양 사상에서 자연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조화롭다. 인간은 단지 그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될 뿐이다.

인간이 자연 섭리를 내치기 때문에 곤궁함에 처하는 것이지, 자연이 먼저 인간을 내치지 않는다. 동양의 세계관은 이와 같은 확신을 고수한다.

따라서 재해와 역병이 인간을 괴롭힐 때, 동양에서는 자연의 뜻을 내버리고 인위(人爲)와 부자연스러

운 욕망에 몸을 내맡겨 살아온 인간들을 우선 탓한다. 자연 자체가 신격을 소유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범신론적인 세계관이다. 이런 범신론적 세계관으로는 초월적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어렵다. 고통, 허무, 죽음을 절감하지만, 이를 통해 자연 너머까지 내다보지는 못한다.

이처럼 동양적인 세계관 안에는 자연 만물을 일순간에 무화시킬 권세와 권능을 가진 초월적 신의 존재를 상정할 만한 요소들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동양 각국의 시가(詩歌)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동양 시가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가 산천(山川)의 유구함과 인생의 허망함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 만물 속에 지고의 존재적 온전함과 영속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의 신적 속성에 대한 한없는 신뢰에 더해, 20세기 아시아 각국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의한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유물론적 세계관까지 유입되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유물론 사상이 들어오면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동양적 사고를 몰아내고 자연환경을 엄정한 물리적 현실로서 인식하여 인류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유입된 유물론이 기괴한 방식으로 동양적 자연관과 융합되었다.

자연 만물에 깃든 신격은 부정한다. 하지만 자연 만물 자체가 지닌 온전함에 대한 오래된 확신은 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자연을 그저 인류의 사회주의적 진보를 위한 질료와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고가 결합되었다.

결국 자연 만물은 인간이 아무리

개발하고 착취해도 완전한 파괴에 이르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신념 하에, 무자비한 자연환경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는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정치경제 현실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서구 각국 정권 및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관 역시 고려해야겠지만, 중국이 오늘날 극심한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는데 중국인들의 자발적 선택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결국 인류가 이전에 절감하지 못했던 재해와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을 말한다.

인류의 삶에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괴질로 인한 고통이 더해진 주 원인은 물론 인간이 섭리를 거스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섭리는 자연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 너머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인류가 향후 겪어야 할 각종 재난과 고통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세계관과 삶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환경보호, 생태보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뉴노멀’을 향한 반성과 변화 노력이 입증하듯, 이런 유익한 변화는 인류 스스로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일어날 수 없고, 종말과 심판을 예고하는 성경의 지혜를 힘입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 멸망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지구 탈출 프로젝트에 관한 영화로, 성경의 노아의 방주 서사를 변용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담임목사님 청빙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앵커리지 제일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
 - 1)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혹은 가입할 수 있는 분
 - 2) 이민 목회 3년 이상 사역하신 분
 - 3) 미국 체류에 결격 사항이 없는 분
 - 4) 이중 언어(한/영) 불편이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1) 교단 PIF (PCUSA.ORG)
 - 2) 본인, 가족소개서(가족 사진포함) 및 신앙고백서
 - 3) 학위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 사본
 - 4) 추천서 2부
 - 5) 최근 6개월 설교 영상 링크 2개
 - 6) 최근 3주간 교회 주보
- **기타**
 - 1)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접수된 서류는 선착순으로 검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윤재필 장로 (Jaepil Yoon, 청빙위원장)
 email: yjp6125@gmail.com
- **문의:** 청빙위원장 윤재필 장로 (907)223-6125

앵커리지 제일 한인장로교회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nchorage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언약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
(이중 한 분은 반드시 현 사역교회 담임목사 혹은 직 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는 분에 한 해 추가로 요청합니다.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 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21년 9월 2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正 品
100% 정품



Made in U.S.A.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기념 SALE



1병 구입시
\$79
+Tax



3병 구입시
\$225
+Tax



6병 구입시
\$432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